

- 다시 찾는 생태관광 도시 만들기 -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순천만보전과)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 I. 출장개요

○ 목 적

-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유럽의 문화 및 환경체험
- 다시 찾고 머물러 가는 생태관광지 만들기 방안 모색
- 선진문화와 생태관광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 교통선진국의 기초질서 탐방

○ 기 간 : 2016. 4. 28. ~ 5. 6.(7박 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국가	도시명	방문 장소	세부내용
오 스 트 리 아	잘츠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츠캄머굿, 할슈타트 문화 탐방</li> <li>· 잘츠부르크 성</li> <li>· 미라벨 정원과 궁전</li> <li>· 모차르트 생가(외관)</li> <li>· 레지던츠 광장, 구시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문화·산업이 연계한 관광사례 발굴</li> <li>-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관광사례 조사</li> </ul>
	비엔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쾨르넨 궁전 및 정원 탐방</li> <li>· 케르트너 거리, 슈테판 사원 탐방</li> <li>· 국립 오페라 극장, 합스부르크 왕궁, 벨베데레 궁전</li> </ul>	
형 가 리	부다페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다지구 문화 탐방 (어부의 요새, 부다 왕궁, 겔레르트 언덕 등)</li> <li>·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 탐방</li> <li>· 페스트 지구 문화 탐방 (성 이슈트반 성당, 영웅광장, 국회 의사당 등)</li> <li>· 다뉴브강 세체니다리 야경 탐방</li> </ul>	

○ 여행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급	주요임무
이군경	산림소득과	행정6급	기획연수 총괄
장찬주	국가정원관리과	행정6급	기획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김경진	순천만보전과	행정6급	현지 연수일정 관리
신수현	순천만보전과	수산8급	기획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오영빈	순천만보전과	청원경찰	여행경비 관리(총무)
김형진	순천만보전과	실무원	여행경비 관리 및 현지 연수일정 관리
이태식	공원녹지사업소	시설6급	연수 기록(사진 및 동영상) 촬영
조성일	공원녹지사업소	청원경찰	방문지 자료 수집 및 정리
조성표	낙안읍성	행정6급	기획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신현호	해룡면	세무6급	방문지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종철	송광면	행정6급	방문지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재성	도로과	실무원	연수 기록(사진 및 동영상) 촬영

## II. 출장 내용

### 1. 주요 활동 내용

일 자		지 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연수내용
제1일	4. 28. (목)	인천 독일 (프랑크푸르트)	OZ541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30~17:00 이동(인천 → 프랑크푸르트)</li> <li>• 숙소 이동(프랑크푸르트 → 아우구스부르크)</li> <li>• 숙소 도착 및 휴식</li> </ul>	출발
제2일	4. 29. (금)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버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00 이동 (아우구스부르크 → 잘츠부르크)</li> <li>• 14:00 잘츠캄머굿 탐방</li> <li>• 16:00 할슈타트 문화 탐방</li> </ul>	문화, 역사 탐방
제3일	4. 30. (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잘츠부르크 문화 탐방 (잘츠부르크성, 미리벨 정원 및 궁전, 모차르트 생가, 레지던츠 광장 등)</li> </ul>	"
제4일	5. 01. (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기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30 이동(잘츠부르크 → 비엔나)</li> <li>• 14:00 쉐브룬 궁전 및 정원 탐방</li> <li>• 16:00 케른트너 거리, 슈테판 사원 탐방</li> </ul>	"
제5일	5. 02. (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비엔나 문화 탐방 (국립 오페라 극장, 합스부르크 왕궁, 벨베데레 궁전 등)</li> </ul>	"
제6일	5. 03. (화)	오스트리아 헝거리 (부다페스트)	버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12:30 이동(비엔나 → 부다페스트)</li> <li>• 14:00 부다지구 문화 탐방 (어부의 요새, 부다 왕궁, 겔레르트 언덕 등)</li> <li>• 19:00~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 탐방</li> </ul>	"
제7일	5. 04. (수)	헝거리 (부다페스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페스트 지구 문화 탐방 (성 이슈트반 성당, 영웅광장, 국회의사당 등)</li> <li>• 19:00~ 다뉴브강 세체니다리 야경 탐방</li> </ul>	"
제8일	5. 05. (목)	헝거리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	버스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00~11:30 이동(부다페스트 → 비엔나)</li> <li>• 12:00~13:00 중식</li> <li>• 13:00~19:00 이동 (비엔나 → 프랑크푸르트)</li> </ul>	"
제9일	5. 06. (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천	OZ542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00~12:20 이동(프랑크푸르트 → 인천)</li> </ul>	도착

### Ⅲ. 주요 방문지 연수내용

#### 1. 요약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꿈꾸며 날아간 동유럽 여행,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오스트리아의 첫인상은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답게 절경으로 감탄사를 낳게 하는 정경의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옥빛 호수는 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정리가 잘된 깨끗한 이미지였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교통의식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심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의식 또한 남달랐으며, 치안도 우수하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다. 동유럽의 진주 부다페스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지나 흐르는 도나우 강변에 자리한 매력적인 도시 영화 글루미선데이로 유명한 도시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동유럽의 진주라고 불릴만큼 낭만적인 멋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동유럽의 파리라 불리울 만큼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은 그 고전적인 아름다움으로 현재 최고의 야경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 1.1. 출발

사무실에서 벗어나 일탈을 꿈꾸며 날아간 동유럽 여행은 기획 단계부터 설렘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까지 심야버스로 이동,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의 긴 여정을 거친 후 프랑크푸르트에 입성할 수 있었다(사진 1과 2).



사진 1. 인천공항에서 출국전 역할분담 회의      사진 2. 프랑크푸르트 공항도착 후 이동

## 1.2. 첫째 날(아우구스부르크 ; Augsburg)

세계 대테러위협으로 인한 입국수속부터 삼엄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 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까다로운 입국수속을 마친 후 공항에서 만난 폴란드 한 여행자의 말로는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여느 도시와는 달리 마천루가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고, 그다지 여행에는 좋지 않은 도시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여행자의 말은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우리가 느낀 프랑크푸르트는 깨끗하고 좋은 도시였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정식 명칭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으로 마인 강이 흐르는 지역에 붙는 지명이라고 한다. 풀어서 쓰면 마인강 옆 프랑크푸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쉽지만 그런 지역을 뒤로 하고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 → 독일의 가장 오랜 2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목적지인 아우구스부르크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 눈에 띄는 것은 하늘에서 바라본 많은 유채꽃들이었는데 독일은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 1위이며 독일의 많은 주유소에서는 유채꽃을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아우구스부르크 DASING 호텔 숙소로 도착.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는 한국에서 비상 식량으로 가지고 온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간 후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분임토의는 따로 하지 않고 본격적인 탐방을 위하여 휴식에 들어갔다.



사진. ①: 유채꽃 전경, ②: 숙소 배정, ③: best western hotel dasing

### 1.3. 둘째 날(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Salzburg)

#### 1.3.1. 잘츠카머гут(Salzkammergut)

7시에 호텔 조식을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골목 모퉁이마다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흘러나오고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흔적도 곳곳에 남아있는 잘츠부르크(Salzburg)로 이동 하였다. 잘츠카머гут은 잘츠부르크의 동쪽일대에 펼쳐져 있는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이 곳에는 산과 호수가 흩어져 있는데 이 지방에 소금을 채취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지금은 광산이 거의 없지만 아름다운 마을은 2,000M의 산으로 둘러싸인채 남아 있어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유럽의 한가운데 있어 '유럽의 심장'으로 여겨지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오랜 기간 고풍스런 예술과 낭만의 교차로는 그야말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 1.3.2. 할슈타트(Hallstatt)

잘츠카머гут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꼭꼭 숨겨둔 보석 같은 풍경이 더 빛을 발하는 곳, 호수와 산이 이보다 더 절묘한 조화를 이뤄낼 수 없는 곳,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힘겹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결코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곳, 호숫가를 따라 언덕위에 늘어선 집들마저 자연과 완벽한 동화를 이뤄내는 곳... 할슈타트를 표현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말들입니다.

할슈타트는 '잘츠카머гут의 진주'라고 불리며, 19세기 세계적인 여행가였던 알렉산더 훔볼트는 할슈타트 호수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런 풍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볼프강 케이블카를 타고 세인트 볼프강(st.wolfgang)의 풍경을 감상하였다. 장크트 길겐은 볼프강 호수를 접하고 있는데 모짜르트 어머니의 고향으로 어린 모짜르트가 마차를 타고 이곳을 찾곤 했다고 한다. 잘츠카머гут 호수 지역은 유럽 유명 인사들의 별장이 많으며 쌍트 길겐은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콜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 과거부터 볼프강 호수는 정치가들의 피난처였다고 한다. 또한 15~17세기의 성지순례자들의 주요한 길목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진. 짤츠카머굿 (①: 썬벨츠호른 입구 ②: 매표  
③: 볼프강케이블카 탑승 ④: Salzkammergut 전경)



zwloferhorn의 설산



Hallstatt

#### 1.4. 셋째 날(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Salzburg), 문화탐방

##### 1.4.1. 짤츠부르크성(Hohensalzburg Castle), 레지던츠 광장

1779년부터 모차르트가 오르간을 연주했던 성당으로 유명하며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은 성당이기도 하다. 6,000개 파이프가 든 파이프 오르간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대성당은 744년 창건되어 1598년 대화재로 소실된 후 1655년에 재건되어 16세기 말 대주교였던 볼프 디트리히는 잘츠부르크를 ‘북쪽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 레지덴츠와 대성당 개축에 착수했다. 특히 대성당은 로마의 산 피에트로 성당에 필적하는 거대한 규모로 건설하려 했고 두 건물 다 완성을 본 것은 2대 후의 대주교인 팔리스 로드론 때 가서였다고 한다. 대성당은 1655년에 완공되었는데 외관은 밝은 대리석으로 치장해 단조로우면서 우아한 느낌이고, 건물 양끝에 있는 높이 80m의 탑은 좌우로 대칭을 이루며 균형을 잡아준다. 내부는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홀이며 하얀 대리석과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20세기 후반 제작된 청동 문 3개는 왼쪽부터 각각 믿음·사랑·희망을 상징한다고 하며 해마다 7·8월이 되면 성당 앞 광장에서 ‘잘츠부르크 음악제’가 열려 무척 붐빈다고 한다. 대성당의 입구에서 1920년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의 희곡 <예더만(Jedermann)>을 상연한 것이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시작이 되었으며 본래 1877년에 열렸던 모차르트제를 모태로 하고 있다. 지금도 돔 입구에서 <예더만>을 공연하는 것이 축제의 개막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대성당 입구 오른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돔 박물관



잘츠부르크성(Hohensalzburg Castle)                      레지던츠광장의 대성당 (Dommuseum)이 있는데 대성당의 보물과 대주교 소장품을 전시해놓았다.

#### 1.4.2. 미라벨정원과 궁전(Mirabell garten)

미라벨정원은 순천만 정원과는 같은 듯 사뭇 다른 느낌의 정원이었다. 1606년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 살로메를 위해 지었으며, 당시는 알트나우라고 불렀다. 후임자인 마르쿠스 시티쿠스 대주교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 오래된 역사와 동유럽의 고풍스러운 멋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아내 우리 일행은 모든걸 내려놓고 잠시 심취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정원은 1690년 바로크 건축의 대가인 요한 피셔 폰 에를라흐(Johann Fischer von Erlach)가 조성하였고, 18세기에 건축가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Johann Lukas von Hildebrandt)가 개조하였으나 1818년 화재로 파괴된 후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예전에는 궁전에 속해 있어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 개방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여 조성하였으며, 분수와 연못, 대리석 조각물과 많은 꽃들로 잘 장식되어 있다. 중앙분수 주위에는 1690년 모스트(Most)가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을 조각한 작품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유럽의 많은 바로크 예술품들을 전시해 놓은 바로크 박물관이 있다. 정원 서쪽에는 1704~1718년에 만든 울타리로 주위를 두른 극장이 있고, 북쪽 문 앞에는 정교한 청동조각으로 꾸민 패가수스 분수가 있다.

또한 잔디정원에 썬 베드가 놓여있어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쉬면서 책도 보고 망중한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미라벨 정원은 우리의 정원 같이 북적대며 바쁘게 관람하는 게 아니라 가족단위 관람객으로 한가로이 노니는 분위기가 참 좋다고 느꼈다. 그리고

미라벨 궁전은 규모는 작아도 콘서트가 많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한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궁전 내 대리석 홀에서 대주교를 위해 연주를 하였으며, 지금도 실내악 연주회가 자주 열린다. 또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리는 식장으로도 인기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면 꽃 장식 마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돈다. 미라벨 정원 맞은편의 미라벨 광장에는 교외로 나가는 많은 관광버스들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1.4.3. 모차르트 생가(Mozart's Birthplace)

잘츠부르크의 대표 변화가인 게트라이데 거리에서 진한 노란색 건물을 찾으면 된다. 모차르트가 1756년 1월 27일 태어난 뒤 17세까지 살던 집으로 모차르트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모차르트의 유년시절 작품이 탄생한 곳으로, 현재는 모차르트가 생전에 사용하던 침대, 바이올린, 피아노, 악보, 초상화,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고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되어 많은 인기를 얻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인지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있는 모차르트의 도시 잘츠부르크에는 음악과 함께 문화가 공기처럼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미라벨정원과 궁전(Mirabell garten)



Mozart's Birthplace

## 1.5 넷째 날(오스트리아 비엔나; Vienna)

### 1.5.1. 쉐브룬 궁전(Schönbrunn Palace)

pension leonharderhofdp에서 조식 후 우리 일행은 영어로는 비엔나(Vienna), 체코어로는 비덴(Videň), 헝가리어로는 베치(Becs)라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합스부르크(Habsburg)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바로크 양식의 매우 화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 내부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수집한 동양 자기나 칠기, 페르시아의 세밀화 등의 우아하고 호화로운 로코코 양식으로 꾸며진 그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과 유산을 탐방하였다.



셴브룬 궁전(Schönbrunn Palace)

17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기까지 유럽 역사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강력한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정원과 궁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예술 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 표현된 종합예술 개념을 보여 주는 훌륭한 예라는 것을 우리 일행은 모두 공감하였다.

#### 1.5.2. 케른트너 거리(Kerntner Street)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빈의 중심거리. 케른트너 거리로 도착 후 우리 일행은 4일간의 현지 음식의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 우선 한식으로 점심식사 후 국립 오페라 극장부터 슈테판 성당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600m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따라 이동 하였다. 1974년 오스트리아 Garinthia(Karnten)주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 잡았다.

쇼핑의 천국이라는 케른트너 거리 주변은 중심가답게 인파가 많았고 도로 양쪽에는 선물용품점과 액세서리점, 부티크, 레스토랑, 카페가 늘어서 있고 우리 일행은 이를 그냥 지나 칠 수가 없어 각자 상점에 들러 기념품과 비엔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비엔나커피를 마시기 위해 노천카페에 들러 다양한 형태의 상점들 구경과 우리 일행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낭만이 흘러 넘치는 도시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노천카페 멜란세 커피를 마시며...

케른트너 거리(Kerntner Street)

### 1.5.3. 슈테판 사원(Stephan Cathedral)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슈페판대성당은 이곳을 찾는 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슈테판 대성당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당으로 빈 대교구의 대성당으로 옛 건물이 가득 들어차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다. 모자이크 지붕이 인상적인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 양식 건물이다. 12세기 중엽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교회가 건설된 것이 시초이며, 14세기 루돌프 4세가 고딕 양식의 대교회로 다시 짓게 했다고 한다. 총 8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슈테판 대성당은 공사 기간만 65년이 소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재로 내부가 소실되었지만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194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슈테판 대성당은 본당의 건물 길이가 107m, 천장 높이가 39m에 이르며, 첨탑은 높이가 137m에 달한다. 23만 장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 장식이 특히 유명하다. 본당 왼편 설교단은 안톤 그람이 제작한 걸작이며, 계단 아래와 왼쪽에 있는 조각상은 조각가 자신을 모델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성당 이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인(聖人) 슈테판에서 유래한 것이다. 1782년에는 모차르트의 결혼식이 있었고, 1791년에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을 치른 곳이다. 매년 12월 31일 빈 시민은 슈테판 대성당 앞 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이하며 이때 와인을 마신 다음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자정이 되면 서로 키스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유명하다.

교회 북측 탑은 엘리베이터로, 남측 탑은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슈테플(Steffl)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남측 탑은 높이가 137m에 달한다. 계단 343개를 따라 남측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슈테판 대성당의 아름다운 지붕과 빈 시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북측 탑에는 1711년에 오스만 투르크인이 두고 간 수백 개의 대포를 녹여 만든 종이 있다. 현재 볼 수 있는 모습은 1957년에 제작한 것인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종이라고 한다. 대성당 지하에는 당시 장례 관습에 따라 합스부르크가 역대 황제와 후손들의 내장을 안치한 납골당(카타콤베)이 있다.

성당 내부를 들어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내부의 화려한 스탠글라스와 부조들은 다음을 기약해 보기로 했다...



①: 슈테판 성당(Stephan Cathedral) ②: 슈테판 앞 시가지  
 ③: 바흐헝글(Bach Hengl) 식당 ④: 호이리게 음식과 헨쌌한 지배인...

## 1.6 다섯째 날(오스트리아; Schloss Belvedere)

### 1.6.1.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클림프트의 작품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있는 벨베데레 궁전!! 아름다운 바로크 건축물로 죽기전에 가봐야 할 세계 건축 100위 안에 있는 궁이기도 하고, 구스타프 클리트, 에곤 쉴레, 한스 마카르트 등 오스트리아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이다.

벨베데레 궁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지어진 아래쪽은 단층 파빌리온으로, 마르티노 알타몬테의 프레스코로 장식한 대리석 홀이 있는 중앙부는 땅에서 높이를 올리고, 망사르 지붕을 덮었다. 위쪽은 그보다 약 10년 후에 세워졌는데, 남쪽으로 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며, 건물 중심에는 다락방을, 양쪽 윙에는 팔각형 파빌리온을 배치한 3층짜리 건물로 그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 이 두 궁전은 잘 정돈된 정원을 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로마에서 카를로 폰타나와 함께 수학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는 오스트리아에서는 피셔 폰 에를라흐의 수제자로, 프랑스 풍이 가미된 바로크 양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군사기술자로 프린츠 오이겐의 북부 이탈리아 원정 당시 그의 휘하에서 일했는데, 이때의 경험에서 많은 건축학적 매너리즘이 유래했다고 한다. 상부 벨베데레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특히 현관에서 층계를 올라가 정원을 내려다보는 살라 테레나로 이르는 시퀀스가 돋보인다. 스투코는 상부와 하부 모두 베네치아에서 온 조반니 스타네티가 그의 문하생들과 함께 완성하였다. 양쪽 모두 이탈리아 화가의 솜씨인 우의적인 혹은 환각적인 천장화이다. 상부 벨베데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복원 과정을 거쳐 2008년 재개장하였다고 한다.

구스타클림프; 색채의 마술사라는 말 답게 그의 작품 키스는 여러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의 아우라가 더욱 더 증폭되는 느낌이랄까?? 화려하고 대비대는 색채 때문에 매혹되는 작품들이 많았던게 아직도 인상에 남는다...

### 1.6.2. 호프부르크 왕궁(Hofburg)

100여 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220년경 건축되었다. 이후부터 1918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이 기거하였고,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며 승마학교, 국제회의장, 미술관, 박물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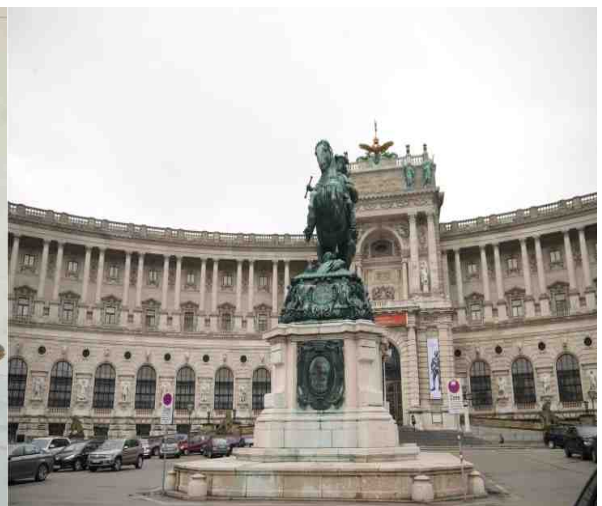
황제들마다 자신이 거처하는 동안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왕궁 내 건축물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독특한 양식으로 지은 것이 특징인데, 이에 따라 예배당은 15세기 중반, 아말리엔호프·스탈부르크는 16세기, 레오폴트 저택은 17세기, 마리아테레시아 저택, 황실사무처, 스페인 승마학교, 세계 최대의 그래픽아트 미술관인 알베르티나(Albertina)와 국립도서관은 18세기, 노이부르크(Neue Burg)는 1914년에 조성되어 각각 서로 다른 다양한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왕궁은 크게 16~18세기에 지어진 구왕궁과 19~20세기에 지어진 신왕궁으로 나누어지며, 신왕궁은 무기·악기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구왕궁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소년합창단이 일요일예배 찬양을 하는 왕궁예배당을 비롯해 왕궁보물창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승마학교인 스페인 승마학교(Spanisch Reitschule) 등이 있다. 전 황제가 사용하던 방은 다음 황제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불문율 때문에 무려 2,600개나 되는 많은 방이 있고, 나폴레옹에게 대승을 거둔 카를 장군, 나폴레옹의 장인인 프란츠 2세(오스트리아 황제로는 프란츠 1세) 등의 기념상이 있다.

우리일행은 외관상으로 장엄하고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의 주변의 조망이 너무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Gustav Klimt. kiss



호프부르크 왕궁(Hofburg)

## 1.7 여섯째 날(헝가리 부다페스트; Budapest)

### 1.7.1. 어부의 요새(Fisherman's Bastion)

seehotel boeck brunn에서 조식을 하고, 우리일행은 아름다운 오스트리아의 일정을 뒤로하고 국경을 넘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하였다. 어부의 요새는 오래된 '성 언덕' 구역에 있으며 도시 발전 단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요새 어부의 요새, 즉 '할라스바스처'는 오래된 '성 언덕'의 동쪽 면을 따라 180m 길이로 뻗어 있는 전망 좋은 성채로, 도나우 강 건너 국회 의사당 건물과 부다페스트의 19세기 페슈트 지역이 내다보이는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 개의 통로와 곳곳에 솟은 일곱 개의 돌로 된 탑으로 이루어진 이 건축물은 '설탕처럼 달콤하다'든지 '동화 같다', 심지어 '디즈니랜드 같다'는 표현으로 묘사되는데, 이유가 없지도 않다. 신고딕 양식과 신로마네스크 양식의 이 건물은 헝가리 건축가 프리제스 슐레크가 디자인했는데, 그는 근처에 있는 고딕 양식의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 교회'('마차스 교회'라는 이름으로 더욱 유명하다)를 창조적으로 보수하고 재건축한 인물이기도 하다.

요새의 가파른 계단과 포석이 깔린 테라스, 원뿔 모양의 탑은 모두 새하얀 석회암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교회 건축물의 보석처럼 새로 복원한 이 건물을 자랑하고 플랑부아양 고딕 양식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였다. '어부의 요새'라는 이상한 이름은(이 성채는 물가에 있지도 않고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요새도 아니다) 현대적인 테라스가 건축되어 있는 오래된 성벽에서 유래했다. 이 성벽은 중세의 생선 시장이 있는 곳 가까이까지 뻗어 있었으며, 따라서 어부 길드 조직원들이 이 성을 방어했던 것이다. 일곱 개의 탑에도 역시 각각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896년 카르파티아 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광활한 평원에 정착했던 일곱 헝가리 부족을 나타낸다고 한다.

부다페스트 시의 인기 있는 상징으로 도시를 홍보하는 거의 모든 안내문에 나타나 있는 이 요새는, 의도된 바와 같이 산책하고, 앉아 쉬고, 아름다운 강의 경치를 감상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낮 동안에는 테라스로 올라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계단마다 약간의 요금이 부과된다. 해가 진 이후부터는 무료로 도시의 불빛들을 감상할 수 있다. 부다페스트의 도나우 강변

과 부다 성 구역, 안드라시 대로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1.7.2. 부다왕궁(Buda Castle), 펠레르트 언덕(Fisherman's Bastion)

부다왕궁은 13세기의 몽고 침입 이후에 벨라 4세가 방어를 위해 처음 지었다고 한다. 궁전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문화와 예술, 정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현재는 역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왕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어부의요새(Fisherman's Bastion)



부다왕궁(Buda Castle)



굴라쉬스프(gulyas) : 유목 민족이었던 헝가리인이 예전부터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다양한 야채와 소고기를 넣고 끓인 시큼한 맛의 스프

## 1.8 일곱째 날(헝가리 부다페스트; Budapest)

### 1.8.1. 성이슈트반대성당(St. Stephen Basilica)

기독교를 헝가리에 전파한 위업으로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대된 이슈트반 성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으로, 50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내부 기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기둥이 지탱하는 아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교회의 탑은 96m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으며 이 숫자는 헝가리의 건국된 해인 896년의 96을 의미한다. 도나우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위해 이보다 높이지을 수 없게 규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지 동유럽은 건축물과 도시의 경관들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고 있는 듯하다.

### 1.8.2. 영웅광장(Heroes' Square)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96년에 지어진 광장이고 광장 중앙에는 36m 높이의 기둥이 있는데, 꼭대기에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조각상이 있다. 기둥 옆에는 마자르의 7개 부족장들의 동상이 있고 이 기둥을 기준으로 반원의 형태로 주랑이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곳에는 헝가리의 역대 왕과 영웅들이 연대순으로 조각되어 있다.

### 1.8.3. 국회의사당(Parliament Buildings)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건물 중 하나로 국회 의사당의 높이 솟은 돔은 헝가리 도시 하늘의 윤곽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같았다.

송곳처럼 뾰족한 첨탑들이 서 있고 유명한 인물들과 장군들을 조각한 90개의 동상이 서 있으며, 중앙에는 둥근 탑이 있는 하얀 석회암으로 조각된 이 건물은, 부다페스트의 페슈트 지역(도나우 강 좌안)을 장식하고 있는 호화로운 눈요깃거리인데, 특히 강 반대편의 '성 언덕'에서 바라보았을 때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웅장한 모습의 사자 한 쌍이 코수트 광장에 있는 공식 현관 계단 양쪽을 지키고 있으며, 계단을 통해 정문으로 들어가면 방대한 규모의 중앙 계단이 나온다.

헝가리 국회 의사당의 건축은 1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건축이 끝나갈 무렵 슈테인들은 너무나 병약해져 의자에 앉은 채로 건축 현장까지 옮겨져 작업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살았으나, 불행히도 이 무렵에는 눈이 먼 상태였다고 한다.

사실 부다페스트 하면 야경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야경이 있는 도시이기에 우리 일행은 다뉴브강 양 옆으로 부다지구와 페스트 지구를 나누면서 국회의사당과 부다왕궁 등 다양한 부다페스트의 건축물의 웅장함과 진정한 부다페스트의 매력을 느낄수 있는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을 투어했다.

사실 부다페스트 하면 야경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야경이 있는 도시이기에 우리 일행은 다뉴브강 양 옆으로 부다지구와 페스트 지구를 나누면서 국회의사당과 부다왕궁 등 다양한 부다페스트의 건축물의 웅장함과 진정한 부다페스트의 매력을 느낄수 있는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을 투어했다.



사진. ①: 다뉴브강(Danube) 전경    ②: 영웅광장(Heroes' Square)  
 ③: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 탑승    ④: 국회의사당(Parliament Buildings)

## 1.9 여덟째 날(독일 프랑크푸르트 → 인천)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벌써 귀국 날이 돌아 왔다. 우리 일행은 전날 마지막 날을 아쉬워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주류 및 오스트리아에서 구입한 와인 등으로 외로운 밤을 달래느라 다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식사 후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 독일의 도로에 대해서 느낀 부분은 날림으로 인한 보수 및 포트홀이라 불리는 아스팔트가 파인곳이 거의 없고 노면상태가 깨끗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트럭 같은 차종 들은 컨테이너 형태의 덮개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적재물로 인한 사고가 없어 보였고 미관상 잘 정돈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어떤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솔직히 독일 뿐 아니라 이번 여행 일정 모든 도시는 그야말로 잘 보존된 건축물과 동화 속에서나 나올법한 아름다운 마을주변의 자연 환경까지 포함하는 거리들은 우리나라가 근대문물을 받아들여 건축하였던 건물들과는 정말 비교 대는 점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번 “다시 찾는 생태관광 도시 만들기” 팀은 이번 테마연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기회가 되면 인근 다른 도시를 기약하자며 약속을 하였고, 이런 좋은 추억 및 경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